

보 도 자 료

현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2016년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 10+1選」

2016. 6.

## 1. 개요

### - 선정 배경

- 현대경제연구원은 매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경제·경영 분야의 트렌드와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이슈를 감안해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를 선정
- 2016년 CEO 필독서로 경제·경영 6권과 인문·사회 4권, 여기에 문학 1권을 더해 모두 11권(10+1권)을 선정했음

### - 선정 기준 : 2015년 7월~2016년 6월 출간된 경제·경영 및 인문·사회 도서를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

-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통찰력을 갖게 하는 도서
-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경제 및 경영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되는 도서
- CEO에게 요구되는 덕목을 갖추고 성찰하는 데에 유용한 도서

### - 선정 방법: 주요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조사, 출판사 설문조사, 그리고 연구원 내부 구성원의 평가를 모두 종합해 최종 추천도서를 선정

#### < 2016년 「휴가철 CEO가 읽어야 할 도서 10+1選」 >

\*무순

분야	No	도서	저자	출판사	출간월
경제 경영 (6選)	1	오리지널스	에덤 그랜트	한국경제신문사	2016.02
	2	유엔 미래보고서 2050	박영숙, 제롬 글렌 공저	교보문고	2016.01
	3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밥	새로운현재	2016.04
	4	볼드(Bold)	피터 디아만디스, 스티븐 코틀러 공저	비즈니스북스	2016.02
	5	로봇의 부상	마틴 포드	세종서적	2016.03
	6	축적의 시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식노마드	2015.09
인문 사회 (4選)	7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015.11
	8	2020 하류노인이 온다	후지타 다카노리	청림출판	2016.04
	9	프레즌스	에이미 커디	알에이치코리아	2016.03
	10	서양철학사	군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	이학사	2016.02
문학 (1選)	+1	안도현 잠문	안도현	이야기가있는집	201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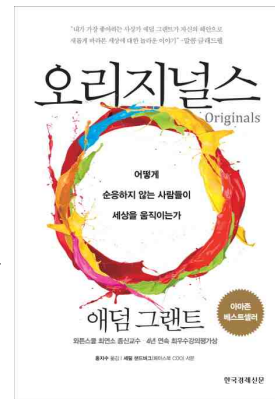
주 : 2015년 7월~2016년 6월 현재 발간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

2. 추천 도서 10+1選 소개\*

○ 경제·경영 분야 (6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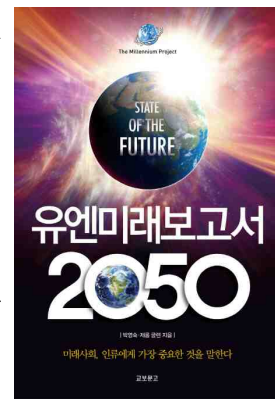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 저 / 홍지수 역 2016.02 / 한국경제신문사
---------	---------------------------------------

스티브 잡스, 마틴 루서 킹, 에이브러햄 링컨 등 세상을 변화시킨 독창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가? 대세에 순응하지 않고, 시류를 거스르며, 구태의연한 전통을 거부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오리지널스(originals)’로 명명한다. 이 책은 오리지널스들이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식별해내고, 변화 앞에서 두려움과 마음의 동요를 극복하고, 목살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비결을 알려준다.



『유엔미래보고서2050』	박영숙, 제롬 글렌 공저 / 이영래 역 2016.01 / 교보문고
---------------	---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창조, 문제 해결, 융합과 연결, 확장 과 같은 핵심 키워드를 통해 2050년 미래 사회를 조망한다. 특히 신기술과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바뀌어야 할 사고방식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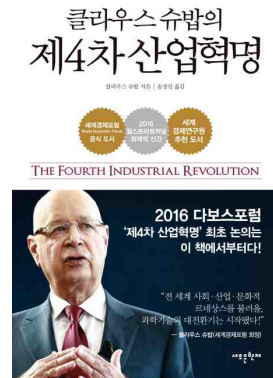


\* 추천 도서별 소개 내용은 서점 및 출판사의 도서 소개, 서평을 참조해서 작성

『클라우드 슈باط의 제4차 산업혁명』	클라우드 슈باط 저 / 송경진 역 2016.04 / 새로운현재
-----------------------	--

우버,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 오늘날 혁신기업은 유비쿼터스와 모바일 인터넷,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내놓았다. 과학기술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탄생한 새로운 파괴적 혁신은 세상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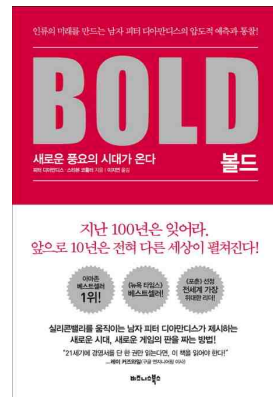
지금 우리 앞에 세상을 뒤흔들 대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저자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새로운 화두,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이야기 한다.



『볼드(Bold)』	피터 디아만디스, 스티븐 코틀러 저 / 이지연 역 2016.02 / 비즈니스북스
------------	---

‘볼드’는 ‘대담한, 누구도 하지 못한 도전적인 생각, 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구글과 NASA가 후원하는 실리콘밸리 민간 창업 대학 싱귤래리티의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는 과거의 생각으로 미래를 장악할 수 없으며 ‘대담한 생각’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게임의 판을 짜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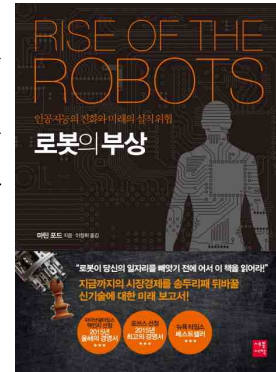
세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기술을 알아보고, 이것이 기존 산업에 미칠 영향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에 없던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p>『로봇의 부상』</p>	<p>마틴 포드 저 / 이창희 역 2016.03 / 세종서적</p>
-----------------	---

로봇의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를 생생히 그려낸 책이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컴퓨터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진해 온 저자는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의 등장이 특히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우리의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그려내고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로봇의 등장에 대응해 우리 인간은 현명한 대처 방안 마련에 심사숙고해야 하며, '미래의 근로자'가 되는 교육과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p>『축적의 시간』</p>	<p>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저 2015.09 / 지식노마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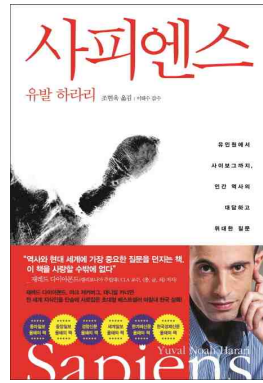
서울공대 26명의 석학이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창의적이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즉 '개념설계'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전제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축적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창조적 역량이다. 이에 '축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공통 키워드 추출의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통찰을 정리하였다.



○ 인문·사회 분야 (4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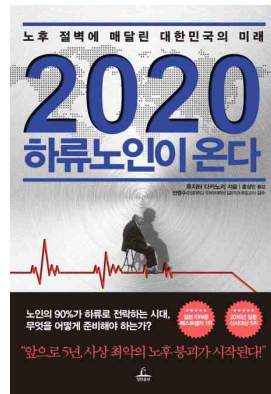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저 / 조현욱 역 2015.11 / 김영사
--------	-----------------------------------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등 최소 6종의 인간 종이 살아 있었다. 이후 호모 사피엔스 종만이 유일한 승자로 지구상에 살아남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과학혁명으로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사피엔스』는 이처럼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이 있는지, 지금이 전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한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과제를 던지고 있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	후지타 다카노리 저 / 홍성민 역 2016.04 / 청림출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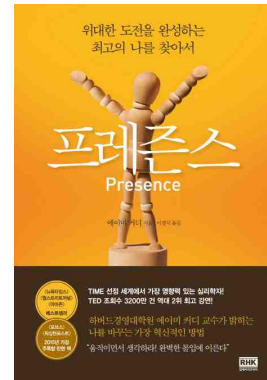
‘하류노인’은 생활보호수준 정도의 소득을 가진 고령자를 지칭하는 일본에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본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하류노인의 실태와 그들이 하류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구제 방법을 실사례를 통해 낱낱이 보여준다.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노후 빈곤을 막을 방법을 제안한다. 일본의 하류노인 실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고령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프레즌스』	에이미 커디 저 / 이경식 역 2016.03 / 알에이치코리아
--------	---------------------------------------

프레즌스(Presence)는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나 사물이 특정한 곳에 있다’는 존재감, 실재감을 뜻한다. 저자인 에이미 커디 교수가 말하는 ‘프레즌스’란 “자신의 진정한 생각, 느낌, 가치 그리고 잠재력을 최고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된 심리 상태”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감, 평정심 그리고 몰입이 필요한데, 저자에 따르면 이는 자세나 태도같은 신체언어를 조금씩 바꿔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면, 가장 강력하고 확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만 상상해도 된다.



『서양철학사』	군나르 시르베크, 닐스 길리에 저 / 윤형식 역 2016.02 / 이학사
---------	---

노르웨이 대표 철학자인 군나르 시르베크와 닐스 길리에가 함께 쓴 철학사 입문서로, 전 세계 14개 언어로 번역된 명저이다. 애초에 대학생을 위한 교양 철학 교재로 집필되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쉽고 명료한 서술이 특징이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정치사상을 아우르는 폭넓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 주며, 20세기 현대 철학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빼놓지 않는다. 특히 철학 개념을 설명하는 다양한 예시와 도해가 독자의 쉬운 이해를 돕는다.



○ 문학 (1選)

『안도현 잡문』	안도현 저 2015.09 / 이야기가있는집
----------	----------------------------

한때 '나를 감동시키지 못한 시'라며 절필했던 안도현 시인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며 잡스러운 문장으로 어떻게든 세상에 말을 걸어보려는 마음에서 <안도현 잡문>을 펴냈다. 3년 동안 트위터에 올린 글 중에서 추려서 펴낸 <안도현 잡문>에 담겨있는 하나 하나의 글은 지루한 일상을 깨뜨리는 문장이다. 그래서 읽다보면 시인이 바라본 순간과 그 풍경에 동화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